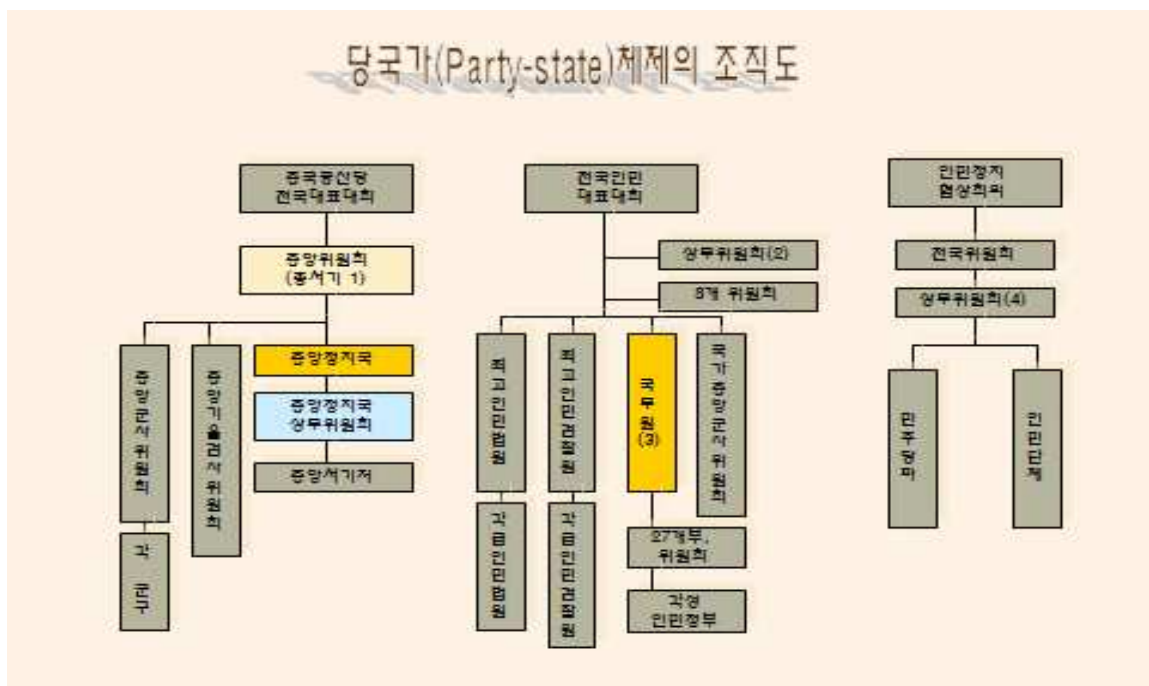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

이희옥(성균관대)

□ 정책결정구조

▲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특징



-당대회에서 토의하고 당 중앙위 전체회의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

-당내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인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을 당 중앙위에서 추진

-당의 정책은 전국인대(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통한 입법화과정을 거침

-입법화된 정책의 실무집행은 국무원의 정부기관들이 담당

: 총리보다 정치국상무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원자바오의 해프닝?)

: 총리가 외사영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의 권한은 제약됨

-외교부

: 부장아래 수명의 부부장, 부장조리(차관보급), 국(司)

: 외교부 당조 주임 역할(견제와균형, 정책계획, 상무공작 인사권, 현재 張志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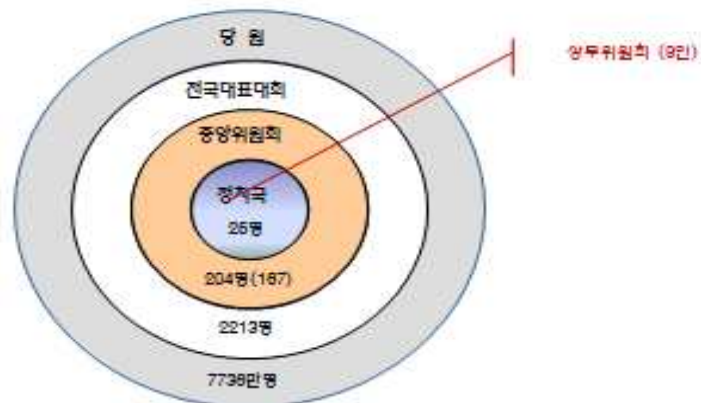
-상무부

: 대외경제임무의 경우 외교부 위임보다는 상무부가 직접 관장하는 경향 증대

□ 대외정책결정기구

▲ 당의 기구

-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당중앙군사위원회



- 중앙서기처

: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실무기구이나 총서기의 직접적 지휘체계를 지님

: 중앙서기처 제1서기(習近平) 劉云山 李源潮 何勇 令計劃 王滬寧

- 당중앙군사위원회

: 군사, 안보정책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당총서기가 주석, 시진핑 부주석(17기 4중전회에서 부주석에 선출)

: 以黨領軍

- 관공청, 조직부, 선전부, 대외연락부, 인민일보, 광명일보
: 대외연락부는 당 대 당의 문제 전달 (현재 약400개 이상의 해외정당과 교류, 한나라당도 포함)

▲ 영도소조(small leadership group)

- 영역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分口體制(歸口管理)
: 레닌주의적 전통에 따른 비공식현상
: 대체로 재경, 정법, 외사, 과학, 문화교육, 군 등으로 구분
- 외교의 경우 중앙외사영도소조
: 조장(국가주석), 부조장(국가부주석), 외교담당 국무원 부총리나 국무위원, 외교부(외교부 부부장), 국방부,公安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대만판공실, 홍콩-마카오 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 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외사판공실 주임 등으로 구성
: 이 조직의 결정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공식외교라인으로 정리됨
: 한 번 결정되면 반복되는 경우가 크게 없음
: 1988년 이후 당 외사판공실이 사무기구를 관장함
: 군의 경우 2부는 무관과견, 3부는 군사정보수집과 분석기능

□ 대외정책결정의 구조와 특징

▲ 정책결정과정의 구조는 관료조직의 경우 회의나 회람정치 (司수준의 의견교환과 장관수준의 조정 병행)

- 다원화
: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으로 인한 다원화, 다양화. Forum Diplomacy의 본격화
: 개혁개방논단(당교), 사회과학원(국무원), 국제문제연구소(외교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안전부), 군사과학원과 국방대학(해방군), 중국국제우호연락회(외교부 등록기관)

-제도화

- : 전국인대의 영향력 강화
- : 참여주체간의 협력의 제도화
- : 정년규정의 제도화

- 전문화(분권화)
 - : 분구체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
 - : 국제업무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 한반도정책 결정과정

▲ 추세

- 영도중심모델에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 추세로 발전
- 지도자의 인식변화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

▲ 기구

-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에는 확실한 한국통 부재
(張德江:연변대학 조선어과 김일성대 유학)
- 중앙외사판공실(주임 겸 비서장: 戴秉国)이 북핵문제 등 중요사안 정책건의
- 당대외연락부(王家瑞)
 - : 북한문제의 독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접촉인사모형
 - : 북한의 반응(수행단 언급순서는 당과 국가의 순서)
- 외교부(楊潔篪), 亞洲司 1處와 조선반도판공실의 역할 증대
 - : 현재 지휘라인은 후진타오⇒외교부장, 부부장 ⇒ 아주담당 부장조리(胡正躍)⇒ 아주국장(羅招輝)⇒조선처장⇒조선반도판공실
- 안전부 부설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산하 조선반도연구실
- 중앙당교 부설 개혁개방논단 내 반도연구중심
- 해방군 총참모부 2부에서 해외정보와 첩보과견업무 수행, 군사과학원 분석팀

▲ 인물

- 국제정치 전문가 그룹

: 대학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런민대학, 푸단대학 등)

: 당교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외교학원, 국제관계학원, 현대국제관계연구원

- 한반도문제 전문가(별첨)

□ 사례

▲ 동북공정

: 중국의 언론에 의한 부각⇒ 외교마찰 ⇒ 외교부 학술적 접근 주장 ⇒ (그러나) 고구려서술부분 삭제, 홈페이지 개편⇒ 한국정부 항의와 외교전 ⇒ 자칭린 방한 이전 한중간 구두합의⇒ 자칭린 방한(후진타오 주석과 중국정부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을 통한 control tower

▲ 2009년 북핵위기 (외교부와 당중앙 불협화음)

: 북한핵실험⇒(제멋대로!) 중국(외교부 주도) 유엔결의안 참여⇒ 북한의 인공위성 실험⇒중국(외교부)비판⇒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중국(외교부)비난과 유엔결의안 참여⇒ 7월 당외사영도소조,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8월 이후 북중관계 복원⇒ 천안함, 연평도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의 일관성⇒ 제3차 핵실험?

국제정치에서 한반도를 접근하는 연구자(예)

楚樹龍 청화대학 전략연구소 소장
劉江永 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龐中英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時殷弘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미국연구소 소장
王 帆 중국외교학원 교수
王逸舟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王緝思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겸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朱 鋒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劉金質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沈志華 북경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夏立平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전략연구실 주임
劉 鳴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
潘振强 해방군 국방전략연구소 교수(전) 개혁개방논단 상임고문

한반도 지역전문가

楊伯江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주임
戚保良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부주임
虞少華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崔志鷹 상해통지(同濟)대학 조선반도연구실 주임
張璉瑰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전)
王宜勝 해방군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연구원
于美華 중국개혁개방논단 동아시아중심 주임
鄭繼勇 상해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중심 교수
李 軍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연구원
金景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교수 (조선족)
方秀玉 상해복단대학 한국조선연구중심 교수(조선족)
朴鍵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조선반도연구중심 주임 (조선족)
趙虎吉 중공중앙당교 교수 (조선족)